

대관장단 성탄절 영적인 모임



사진 촬영: 피터 레일리크

헝클리 대관장이 새로운 컨퍼런스 센터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대관장단 성탄절 영적 모임에서 회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2000년 12월 3일 연례 대관장단 성탄절 영적인 모임에서 대관장단은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 말했다. 이것은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첫번째 성탄절 영적인 모임이며 템플 스퀘어 오케스트라가 태버나클 합창단과 청중을 위해 처음으로 반주를 한 영적인 모임이었다.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였던 고든 비 헝클리 대관장은 참석한 이들이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길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분의 삶과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의미가 큼니다. 이 모임은 만인의 주이시며 전능하신 주님께 기도와 노래와 말씀으로 경의를 표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분은 몸을 낮추어 이 지상에 오셨으며 속국의 마구간이라는 가장 초라한 환경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헝클리 대관장은 우리는 때가 찬 시대에 살고 있

다고 설명하면서 “때가 찬”이라는 구절에 특히 유의해 주기를 부탁했다. “이는 과거에 모아졌다가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지상에 회복된 모든 선을 의미합니다.”

헝클리 대관장은 또한 많은 교회 회원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감사를 표했다.

“인간의 자유라는 귀중한 혜택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구세주의 가르침의 산물입니다. 그분은 모든 개개인의 영혼이 귀중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래[는] 복이 있도다’(시편 33:12) 저는 인간의 자유가 그리스도의 교리가 가져온 놀라운 열매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린도후서 3:17)

그러고 나서 헝클리 대관장은 우리가 성탄절에 그 탄생을 경축하는 분인 구세주에 관해 말했다.

“모든 사건이 끝나고 무수한 세월이 과거가 될 때, 인간이 인간에게 행한 끔찍한 만행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측량해 볼 그 날에는 그리스도만이 홀로 그 모든 것 위에 서실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속주요 인류의 구주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이요 평강의 왕이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사야는 주님이 오시기 수 세기 전에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그분은 아버지의 지시하에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대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요한복음 1:3) 없었습니다. 그분은 고대의 예언자들과 말씀을 나누신 위대한 여호외였습니다.

“그분은 비천한 신분의 아기로서 절정의 시대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경이로운 부활절을 가져다주신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전능하신 엘로힘이요 우주의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 경륜의 시대에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그분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구 역사의 바로 이 시기에 요셉은 살아 계신 그분을 목격한 특별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헝클리 대관장은 성스러운 숲을 방문했던 일에 대해서도 말씀했다. 그리고 요셉 스미스의 간증을 인용한 후, 오래 전에 헝클리 대관장이 직접 쓴 “승리한 나의 구속주”(찬송가, 75장) 찬송가 가사로 간증을 마쳤다.

대관장단의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과 제2보좌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도 이 모임에서 말씀을 했으며 구세주의 탄생과 크리스마스의 영에 대해 이야기했다. 몬슨 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 세대를 거쳐 오는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메시지는 늘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부름은 빌립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던 레위인에게도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다면 여러분과 저도 ‘나를 따르라’는 똑같은 권유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파우스트 부대관장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저는 우리가 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성탄절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는 일년 365일 똑같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서 언제나 조카, 삼촌, 이모, 고모, 사촌, 친구, 그리고 형제 자매입니다. 성탄절까지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매일 조금씩 마음을 더 열기 위해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12월보다 7월에 받는 선물이나 감사의 표현이 더 뜻밖일 수 있으며 감사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휴 더블류 피노크 장로

휴 피노크 장로, 66세의 나이로 별세

칠십인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휴 피노크 장로가 병석에 누운 지 얼마 안 되어 2000년 12월 15일, 66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2000년 12월 20일에 템플 스퀘어의 어셈블리 홀에서 열린 피노크 장로의 장례식에서는 세 분의 대관장단이 모두 말씀했다. 대관장단은 피노크 장로의 가족에게 조의를 표

하고 그분의 공덕을 기렸다. 대관장단은 피노크 장로가 훌륭한 모범을 보인 지도자였으며 많은 이들이 그분을 그리워 할 것이라고 말씀했다.

휴 더블류 피노크 장로는 1977년 10월 1일 칠십인 제1정원회 일원으로 부름 받았다. 돌아 가실 당시 그 분은 북미 남서 지역 회장단의 제2보좌로 봉사

하고 있었다.

피노크 장로는 웨스턴 스테이트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선교부장의 제2보좌로 봉사한 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직책에서 봉사했다. 그 분은 신권 지도자 위원회, 찬송가 위원회 고문 등을 포함하여 고등 평의원과 감독, 선교부장, 지역

대표, 각종 교회 본부 위원회에서도 봉사했다. 그 분은 본부 주일학교 회장을 두 번 역임했으며 칠십인 회장단의 일원으로도 봉사했다.

피노크 장로는 유타 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고, 웨스트민스터 대학과 솔트레이크 커뮤니티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

위를 받았다. 그레나이트 학군 교육 위원회와 다른 수 많은 회사 및 지역 봉사 위원회의 일원으로도 봉사했다.

휴 더블류 피노크 장로는 1934년 1월 15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출생했다. 엔 호킨스 자매와 결혼하여 슬하에 6명의 자녀와 21명의 손자녀를 두고 있다.

복원된 나부 성전

스코트 로이드

석재 구입, 세공, 조각 업무를 조정하도록 부름 받은 한 책임자는 새로운 나부 일리노이 성전 건축이 장인 기술과 작업 수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특히 성전 외벽과 침례탕의 정교한 석조 작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선 스톤 섬유 유리 모형으로 인해 훌륭한 조각가들이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케이트 피 맥케이 장로와 그의 부인 카르마 자매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미시시피 강둑에 최초로 그러한 건물을 지었던 사람들이 기리는 건물로서 있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부름 받은 첫 번째 선교사 그룹 일원이다. (“주님의 축복에 감사함”,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105쪽)

“초기 나부 성전의 선 스톤(일석), 문 스톤(월석), 스타 스톤(성석) 작업을 하기 위해 1841년 미 전역에서 조각가들이 고용되었죠.”라고 맥케이 장로는 말한다. 유타주에 사업체를 둔 맥케이 장로는 유타 맨타이 성전을 비롯하여 많은 유명한 건물들의 복원 공

사를 했다.

초기 나부 성전 건축자들의 유산을 충실하게 복원하기 위해, 맥케이 장로는 캐나다, 펜실베이니아, 인디애나, 아이다호, 그리고 유타 등지로부터, 독특한 1840년대 성전의 침례탕과 외벽의 건축적 특색을 복원해 낼 예술가들을 고용했다.

“제가 아는 한 그들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가장 뛰어난 조각가들입니다. 거의가 교회 회원은 아니지만 모두 2002년에 있을 성전의 공개 전시회에 초대되었습니다. 모두들 너무나 이 공개 전시회에 참석하고 싶어하죠.”라고 맥케이 장로는 말한다.

이 건축 작업의 모든 과정에는 신성한 인도가 스며들어 있다. 성전의 콘크리트 벽 표면 작업에 쓸 석회암을 선택할 때도 그랬다. 처음에는 초기 성전의 석재를 채굴했던 나부 및 나부 인근 채석장에서 채석을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나부 남쪽에 건설된 댐으로 인해 미시시피 강의 현재 수위가 1840년보다 높아졌고, 두 개의 주 채석장이 물에 잠겼다. 인근 채석장에서 시추를 해보았으나 폭파로 인해 암석이 광범위하게 균열되어 건축



사진 촬영: 케이는 폴슨, 컷지 뉴스 제공



케이트 피 맥케이 장로가 초기 나부 성전 부지에서 파낸 돌 두 개 중 하나의 줄무늬를 가리고 있다.

자재로는 부적합함이 밝혀졌다.

석재 선택

최종적인 석재 선택은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맥케이 장로의 친구인 테드 오차드 형제는 컨퍼런스 센터에 쓰인 화강암 작업을 맡았던 회사의 회장이다. 오차드 형제는 다른 주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한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그 회사는 엘라배마에 있는 석회암 채석장을 구매했다.

맥케이 형제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그는 테드 형제에게 전화를 해서 이 석재들을 팔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부 성전의 건축에 대해서 알고 있던 테드 형제는 제게 전화를 해서는 제가 그 석재들을 보러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작업 책임자인 로널드 프린스 형제와 함께 맥케이 장로는 그 채석장을 찾아갔다. 놀랍게도 두 사람은 그 곳에서 초기 성전에 쓰인 건축 석재와 거의 구분하기 어려운 석회암을 발견했다.

“그 돌조각들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들은

거의 완벽할 만큼 흡사합니다. 돌을 통과하는 검은 줄무늬까지 말입니다.”

복원에 따르는 어려움

선 스톤(일석), 문 스톤(월석), 스타 스톤(성석)의 복원은 또 하나의 난제였다. 본래의 성전에 사용되었던 두 개의 선 스톤은 거의 손상되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는 위싱턴의 스미스 소니언 재단에서 보관하며 전시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나부의 방문자 센터에 보존되어 있다. 이 두 돌은 참조에는 도움이 되지만 두 돌이 모두 모델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지도 않다.

그러나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수많은 작은 기적들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원래 성전에서 떨어져 나간 돌 조각들과 성전 건물을 찍은 진귀한 몇 장의 사진들을 여기저기서 전해 왔다. 맥케이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러 이러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혹

시 도움이 되겠냐구요.”

예를 들면, 한 남자는 골동품 수집가에게서 구한 커다란 선 스톤을 기부했는데 그 돌에는 복잡한 모양의 트럼펫 장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디자이너들은 사진을 보고 진흙을 사용하여 떨어져 나간 코와 선 스톤의 손실된 부분을 조각했다. 그리고 나서 완성된 조각에 28회에 걸쳐 유액을 입혔다. 유액이 식은 후에 외피를 벗겨 내면 섬유 유리 모형을 제조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다. 그런 방법으로 조각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 스톤, 문 스톤, 스타 스톤의 모형들이 만들어졌다.

다른 작은 기적은 성전 토대와 벽에 쓰이는 석회암의 표면을 마무리하는 일에 관한 것이다. 인부들이 원래 성전 부지였던 곳의 땅을 파고 초기 성전의 표면 문양을 보여 주는 두 개의 돌을 찾아 냈다. 하나는 그물 망 문양이었고 다른 하나는 수직 줄무늬, 혹은 작은 평행선이 연속되는 문양이었다.

초기 성전에 쓰였던 석회암은 말일성도들이 이주한 직후, 소규모 감옥 등 수 많은 건물을 짓는 데 쓰였으나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석회암 중에서는 새로 발견한 이 석회암들에 있는 그물망 무늬나 줄무늬를 찾아 볼 수 없었다. 새로 발견한 돌들 덕분에 맥케이 장로와 그의 동료들은 새로운 성전 석재의 표면 무늬를 복원할 수 있는 조각칼을 만들 수 있었다.

소형 끌과 손바닥 크기의 압축 공기 망치를 사용해서 수작업을 할 인력을 찾은 것과 같은 일련의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면서 1841년 성악의 백성들이 건축한 주님의 집이 새로운 나부 성전으로 충실하게 재현되는 일이 점차 실현되고 있다.

2000년 12월 2일자 처치 뉴스 발췌

증인이 된 청년들

줄리 에이 닉스테이더

이 광경을 상상해 보라. — 550,000명의 청년 합창단이 “내 구주 살아 계시다”(찬송가, 68장)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550,000명의 청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음악과 낭송, 공예품 전시를 통해 그들의 간증을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이 행사는 2000년 11월, 일년에 걸친 세계 청년 축제의 마지막 활동으로 펼쳐졌다. 이 청년들이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모두 한 건물, 혹은 한 나라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 교회의 스테이크와 지방부에 그들은 가족과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1년 동안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함께 이야기했다. 그들은 또한 그들이 1년 동안 계속된 축제 주제인 “증인이 됨”을 생활에 적용함으로써 가족과 지역사회와 나라를 어떻게 강화시켰는지 되돌아 보았다.

본부 청년 회장인 마가렛 디 네이돌드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전세계의 소녀들이 합창을 하고 음악 및 다른 창조적인 방법을 통해 구세주의 성역과 삶에 대해 간증하고 그분의 2000번째 탄생일을 축하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해도 전율을 느낍니다.”

세계 축제는 보통 3년에 한 번씩 열린다. 지난번 축제는 1998년에 열렸으나 구세주의 2000번째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 행사는 예외적으로 2000년에 열리게 되었다.

다음은 청년들이 간증을 전하고 계명을 지키며 의로운 모범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어떻게 구세주의 증인이 되었는가에 관한 사례들이다.

캐나다, 퀘벡, 몬트리올

몬트리올 퀘벡 마운트 로예일 스테이크의 라살레 와드에 다니고 있는 16세의 타냐 애쉬비의 예에서처럼 증인이 됨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타냐의 어머니는 타냐가 3세쯤 되었을 때 교회에 들어왔으나 몇 년 동안 저활동이었다. 타냐는 그녀가 12세쯤이었을 때 한 가정 복음 교사가 그녀의 가족을 꾸준히 방문했던 일과 그의 딸 레베카 카우프먼이 세미나리에 나가기 시작했던 일을 기억한다. “그는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방문했어요. 갑자기 저는 교회로 돌아가고 싶어졌죠. 저는 엄마에게 세미나리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죠. 그 일요일 저는 교회에 나갔고 그 이후로 계속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간 후 저는 제가 오길 원했던 곳이 바로 이 곳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스테이크의 로

스앤젤레스 한국인 제2지부에 나가는 열 다섯 살의 글로리아 박은 교회와 가정의 울타리 너머까지 손을 내미는 것의 가치를 믿는다. 크레센타 밸리 고등학교에 다니며 전 과목의 성적이 A인 글로리아는 매주 베르두고 힐스 병원에서 자원 봉사를 한다. 그녀의 책임은 환자들에게 식사를 가져다주고 실험실에 표본들을 날라 주며, 병원 매점에서 출납원으로 일하고 환자들의 병실 이동이나 퇴원을 돕는 것이다.

“좋은 경험이에요.”라고 그녀는 말한다. “지역 사회의 일을 도움으로써 좋은 모범을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상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요.”

나미비아, 빈트후쿠

청년 프로그램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단합과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

예를 들면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선교



캐나다 퀘벡 몬트리올의 청년들. 왼쪽부터: 생둥이 지오바나와 필로메나 루시토, 레베카 카우프먼, 메리 나디아 나문베이라게, 타냐 애쉬비

사진 촬영: 줄리 에이 닉스테이더, 처치 뉴스 제공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청소년들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부 지역인 나미비아의 빈트후크 지부에 다니는 웜바 마쿠아는 이렇게 썼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제가 청년이라는 것이 좋아요. 청년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도 잊지 못할 거예요. 이제 곧 저는 상호부조회에 속하게 되거든요.

성전에서 가족과 인봉 받은 일과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내리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저는 너무나 감사하려고요. 언젠가 성전에 가서 그 곳에서 결혼하고 저의 미래의 가족과도 인봉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복음은 유혹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스테이크 청년 회장 메리 앤 카사노바 자매는 청년 캠프를 포함하여 작년 한 해 동안 열린 활동들에 대해 썼다.

“2000년은 우리의 청소년들이 크게 발전한 한 해였으며 스테이크의 청소년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두 번의 스테이크 청년 캠프에서 느낀 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요하네스버그 지역의 캠프는 수이케르보스

란드라는 아름다운 캠프지에서 열렸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우리 모두가 산에 올라갔을 때 날씨는 몹시 추웠습니다.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아름다움과 놀라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정상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맛있는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각 와드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청년들을 위해 하나 하나 포장해 준 것이었습니다. 자매들 간의 단합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마지막 활동으로 청년들은 칸타타를 발표했다. 청년들은 찬송가를 부르고 간증을 전했으며 시를 낭송하고 함께 영적인 경험을 이야기했다.

캐나다, 앨버타, 카드스톤

카드스톤 앨버타 스테이크의 카드스톤 제6와드의 청년들은 지난 1월, 2000년 한 해 동안 함께 대리 침례와 확인 의식을 받음으로써 2000명을 위해 성전 의식을 받고, 무료로 아이들을 돌보아 줌으로써 와드의 어른들이 엔다우먼트와 인봉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00년 1월 25일에 있었던 새로운 시작에서 청년들은 성전 의식에 참여하기에 합당하게 됨으로써 “증인이 됨”이라는 주제

를 지키도록 격려 받았다. 와드 청년회 끝별반 서기인 젠 브래차는 목표가 너무 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세계 청년 축제가 열리기 3달 전인 8월쯤 이 목표는 달성되었다. 그녀가 계산해 보았을 때 와드의 청년들은 이제 2500명 이상에 대한 성전 의식을 마쳤다.

브래차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놀라운 일이에요. 어떤 것도 이 청년들 사이에 이런 강한 유대를 만들어 내진 못할 거예요. 성전에 대한 목표를 세운 덕분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카드스톤 앨버타 스테이크의 카드스톤 제2와드와 제8와드의 청년들도 2000번 이상의 성전 의식을 마쳤다.

제2와드의 청년 회장단이자 26명의 청년 중 한 명인 스테이지 에트우드스는 “그들은 성전에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라고 말한다.

“올해에는 갈 수 있는 한 성전에 자주 가고 굳은 결심을 했죠.”

15세인 킴 바드나이스는 그녀가 성전 안에서 갖게 되는 느낌을 너무 좋아한다고 말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워지는 것은 정말 훌륭한 느낌이에요.”

에트우드 자매는 성전에 참여하는 것이 다른 지역의 십대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발전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들은 성전 추천서를 받기 원했죠.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을 느꼈고 그 영이 그들의 생활에서도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12세인 헤더 해리스는 성전에서 느끼는 영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성전에 가면 여러분의 영이 고양되고 성전에 자주 가고 싶게 돼요.”

2000년 12월 2일자 처치 뉴스 발췌

150주년을 맞은 하와이

하와이에서의 1850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교회 역사 150주년을 기념하는 일년 간의 행사는 2000년 12월 9일 4시간 동안의 음악과 무용이 펼쳐지는 가운데 길이 기억될만한 마무리를 했다. 브리감 영 대학교 하와이 캐넌 활동 센터에서 열린 이 축하 모임에는 1000명 이상이 참석했다. 손님들은 호이케('축하 모임을 본다'는 뜻)가 열리는 건물로 들어가면서 BYU 하와이 하와이학 책임자인 카와이위울라오칼라니 윌리스 3세가 부르는 하와이의 환영가로 환영을 받았다. 폴리네시아 문화 센터의 섬 문화 담당자인 그의 사촌 사이 미노아가 브릿지가 이번 행사를 위한 음악을 작곡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말일성도 하와이 음악의 어머니로서 82세의 나이에 지금도 전문적인 공연을 계속 하고 있는 기노아 키위에게 관심이 집중되었다. 키위 자매는 12월 16일 BYU 하와이의 졸업식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했다.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하와이 회원들은 12개월 동안 지역 사회에서 봉사 활동을 펼치고 가족 역사 박람회, 축제와 합창 대회, 특별 축하 노년의 모임, 역사극 공연 등을 개최했다. 일년 간의 행사는 2000년 1월 23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하와이 코나 성전을 헌납한 때로부터 시작되었다. 칠십인 정원회의 북미 서 지역 회장인 존 비 딕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하와이의 성도들은 교회의 회복 초기 시절부터 훌륭한 교회의 유산을 간직해 왔습니다. 복음은 그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충실했고 그 결과 이렇게 150주년을 기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순간입니다. 우리는 하와이 성도들과 그들이 이



BYU 하와이 학생들이 호이케 2000에서 공연하고 있다.

교회에 널리 미친 위대한 영향력에 매우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영향력을 함께 나누었던 약 500명의 사람들이 11월 25일 라이에 성전 건축자들의 제회 모임에 모였다. 이 성전은 80년 이상 되었으며 미대륙 이외의 지역에 지어진 첫번째 성전이다. 4시간 동안 계속된 제회 모임은 BYU 하와이 캠퍼스의 캐넌 활동 센터에서 열렸다. 현재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수십 년 전 이 성전에서 봉사한 사람들과 1919년 어렸을 때 성전 헌납식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함께 만났다.

150주년 기념 노년의 모임에서 윌리엄 카와이위울라오칼라니 윌리스 3세가 한 말에 따르면 10명의 말일성도 선교사들, 즉 하이람 클라크 부장과 헨리 비글러, 하이람 블랙웰, 조지 큐 캐넌, 존 딕슨, 윌리엄 페러, 제임스 하킨즈, 제임스 키일러, 토마스 모리스, 토마스 휘틀러 장로 등이 1850년 12월 12일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윌리스 형제

는 1850년 12월 13일 이 장로들이 클라크 부장의 인솔 하에 호놀룰루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으로 가서 돌로 제단을 쌓고 이 땅을 하나님의 성스러운 목적에 헌납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다고 설명했다.

윌리스 형제는 선교사들이 언어를 배우는 일을 비롯하여 커다란 도전들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집으로 돌아갔으나 캐넌 장로와 키일러 장로는 1851년 8월 하와이에 첫번째 교회 지부를 조직했다. 하와이어 판 몰몬경-가 부케 아 모라모나-은 몇 년 후에 나오게 되었다.

아마도 가장 유명한 선교사는 하이람 스미스의 아들이자 요셉 스미스의 조카인 15세의 조셉 에프 스미스일 것이다. 1854년에 도착한 이 청년은 섬에서 3년 동안 일했으며 마우이와 하와이, 몰로카이에서 컨퍼런스 프레지던트로 봉사했다. 그는 하와이의 세 선교부에서 봉사했고 후에 교회의 대관장이 되었다.

2000년 12월 16일자 처치 뉴스 발췌



이 고대 제단에는 네이훙이란 말이 새겨져 있다.

몰몬경, 에맨의 지역과 연관

말 일성도로 이루어진 한 연구 단체가 최근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 끝에 위치한 에맨에서 한 장소가 리하이의 육로 여행에 등장하는 지명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를 찾았다.

워런 에스턴, 린 힐튼, 조지 휘트는 두 개의 돌 제단을 발견했는데 전문 고고학자들은 이 제단들을 최소한 BC 700년 경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제단에는 “네이

훙”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어 이러한 장소가 리하이 이전 시대에 실제로 반도에 존재했음을 확인해 주고 있다. 몰몬경에는 이스마엘이 죽은 후 네이훙이라는 곳에 장사되었다고 나와 있다.

휘트 형제는 이스라엘이나 홍해를 제외하고 이것이 몰몬경에 나온 지명을 뒷받침해주는 첫번째 고고학적 발견이라고 말했다.

2001년 4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 보충 제언



다음은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자료로서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리야호나* 2001년 4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의 보충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제언에 해당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을 위해서는 이번 호 친구들란 4~5쪽의 “예언자의 음성을 들으라”를 참조한다



1. “나는 무슨 노래일까요?” 게임을 한다. 종이로 커다란 음표를 만들고 각 음표의 뒤에 찬송가나 노래의 쪽 숫자를 쓴다. 음표들을 바닥에 놓는다. 아이들이 음표 위로 콩주머니를 던지게 한다. 콩주머니가 한

음표 위에 떨어지면 피아노 연주자에게 그 음표 뒷면의 숫자를 말해 주고 처음 몇 마디를 연주해 달라고 한다. 피아노가 없으면 노래 첫 부분의 몇 마디를 허밍으로 불러 준다. 아이들에게 그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맞춰 보라고 한다. 아이들에게 이 노래는 예언자가 최근의 연차 대회에서 가

르친 메시지 중의 하나를 말해 준다고 이야기하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물어 본다. 그 메시지를 맞힌 아이에게 예언자를 따르기 위해서 다음주에 할 수 있는 일을 말해 보게 한다. 그 아이가 노래를 이끌어가게 도와준다.

2. 종이나 담요를 교실 앞 쪽에 걸어 놓는다. 그 뒤에 신권 지도자가 서 있게 하고 한 아이를 담요 앞에 서게 한다. 신권 지도자가 그 아이에게 성구나 영적인 메시지를 작은 소리로 속삭인다. 그리고 나서 아이는 그 메시지를 전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전해 준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방법을 예로 든 것이라고 말해 준다. 예언자가 주님을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어린이가 신권 지도자를 대신해 말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신권 지도자에게 예언자의 권고에 순종했을 때 축복을 받았던 경험을 나누고 어린이들에게 간증을 전해 주도록 부탁한다.

3. 어린이들이 교리와 성약 1편 38절의 일부를 암기하도록 도와준다. 이 구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분의 종인 우

리의 예언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설명한다. 예언자가 우리를 가르칠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과 똑 같다.

어린이들을 네 그룹으로 나눈다. 첫번째 그룹에게 첫번째 시현 그림을 준다. 한 어린이가 그 그림을 들면 어린이들이 다음과 같이 암송하게 한다.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다른 세 그룹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암송한다. 두 번째 그룹에게는 모세와 불타고 있는 떨기 나무 그림을 주고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라는 성구의 일부를 암송하게 한다. 세 번째 그룹에게는 고든 비헝클리 대관장의 사진을 주고 “내 종의 음성이거나”라는 말을 암송하게 한다. 네 번째 그룹에게는 커다란 등호 표시 그림을 주고 “다 같으니라”라는 말을 암송하게 한다. 어린이들이 모두 암기할 수 있을 때까지 각 구절을 반복한다.



전통과 첨단이 함께하는 교회

수원 스테이크 신풍 와드



1971년 열렸던 수원 지부 대회에 참석한 당시 회원들 모습.

“진실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시온은 기뻐하라. 마음이 청결한 자가 곧 시온이니라.”(교리와 성약 97:21)

1. 수원 지역에 복음이 전파됨

1970년 5월 11일 한국 선교부 산하 수원 지역이 창설되었고 로버트 텅기 장로와 스콧 윈 장로가 전임 선교사로 파견되었다. 처음에는 5명이 매산동 선교사 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당시 참석자는 선교사 2명, 정지현 형제, 호희순 자매, 구도자 1명 등이었다. 그러다가 호희순 자매와 다른 두 명의 구도자가 8월 15일 원천 유원지에서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 지역 최초의 개종자가 나왔다. 1970년 6월 27일에는 수원 전도소가 서 중앙 지방부 소속 수원 지역으로 승격되어 지부 건물을 수원시 매산로 3가에 위치한 소방서 앞 건물로 이전하였으며, 초대 지부장으로 정지현 형제가 부름 받았다.

2. 집회소 건물의 헌납과 와드 조직

1976년 5월 20일 현 신풍 와드가 자리한 대지를 매입하였다. 2833m²에 달하는 와드 부지는 수원 성곽 안에 아늑하게 자리를 잡아 시내에서도 보기 드물게 훌륭한 땅이었다. 1980년 5월 20일 착공된 건물은 만 3년 째인 1983년 3월 13일에 완공되었으며, 당시 회원들이 건축 기금을 모으기도 했고 공사 현장에 와서 직접 일을 하기도 했다. 헌납식에서 당시 지역 대표였던 이호남 형제는 교회의 명에 따라 역사적인 의식을 수행하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

희에게 주시리라”는 권고의 말씀을 주었다. 수원 지부는 1980년 10월 26일 수원 와드로 승격되었으며 초대 감독으로 문시우 형제가 부름 받았다.

3. 스테이크가 조직되면서 시온의 경계가 넓어짐

1992년까지 서울 서 스테이크에 소속되어 있던 수원 지역이 분리되어 그 해 5월 24일 수원 스테이크가 조직되자 이 지역 성도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초대 스테이크장으로 이용환 형제가 부름을 받아 현재까지 스테이크장으로 봉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복음 전파 30주년을 기념하여 ‘수원 스테이크 30년사’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작은 지부로 시작한 수원 스테이크는 현재 신풍, 권선, 울전, 매탄, 오산 와드와 평택, 안성, 용인 지부 등 8개의 와드, 지부가 있는 스테이크로 성장하였다.

4. 신풍 와드의 현재와 미래

수원 지역 최초의 교회로 출발한 신풍 와드는 그동안 많은 성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내실 있고 강한 와드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전통과 더불어 성전 추천서를 발급받은 성인 회원 모두가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점, 와드 회원들이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자랑거리이다. 작년 4월 개설된 신풍 와드 홈페이지(<http://my.dreamwiz.com/su-worlds/>) 게시판에는 무려 2,100여 개의 글들이 올라와 있으며, 지난 1월에는 조회 수 10,000건을 넘어선 기념으로 신풍 와드 홈페이지 오픈 하우스를 마련하였다. 이 기간 동안 각 지역



수원 지역 최초의 선교사
로버트 텅기 장로와 스콧 윈 장로

의 회원과 비회원들이 찾아 축하의 글을 남겨 주었으며, 암으로 투병 중인 배용미 자매를 위하여 배 자매의 가정 복음 교사인 김형진 형제가 세계 각국에 이 메일을 보내자 유럽과 미국, 아프리카의 성도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겠다는 80여 통의 답장을 보내와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다.

과거 신풍 와드의 지역적 기반이 되었던 수원 성곽 주변은 이제 구 시가지가 되었다. 그래서 더 효율적인 선교 사업이 필요하며 저 활동 회원을 활동화시키는 것만이



현재의 신풍 와드 회원들

와드를 발전시키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회원들은 잘 알고 있다. 그들의 노력에 주님의 축복이 임한다면 신풍 와드는 더 강하고 내실 있는 와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이상호)

한국 교회의 명문 가정

허채, 최수영 형제의 가족과 방계 친족

명문 가정에 대한 소개가 나간 후 많은 반응을 보여 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명문 가정은 **세상적인 다른 기준이 아니라 가족과 일가 친척 중에서 교회 회원이 많은 가정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 기사가 많은 성도들에게 큰 격려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편집자 주.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다. 허채 형제와 그의 사위 최수영 형제는 가족 역사 연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악한 자의 자손을 쇠퇴케 하신다는 섭리를 깨달았다. 그들은 후손에게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심어주어야 함을 알았고, 이 사실은 그들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

1. 인천 지역의 첫번째 회원

인천에 선교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67년 2월 2일 스펜서 장로와 이정은 장로가 전임 선교사로 파견되면서다. 허채 형제는 선교사를 만나기 얼마 전에 매우 위험한 수술을 받았는데, 그 때 기

도하기를 ‘수술 후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다면 하나님의 사업에 전념하겠다’고 하였다. 그는 곧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고 얼마 뒤 목욕탕에서 파란 눈의 사람을 보았다. 한국 사람이 다니는 욕탕에 왜 저런 사람이 와 있나 하는 생각에 말을 걸어 보았으나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도 말을 하지 않았다. 수술하기 전 병원에서 기도한 것이 생각났고, ‘주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 파란 눈의 사람은 목욕을 마치고 나가더니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목욕을 간단히 하고 나와서 인사를 했는데 명함을 내어 주며 “저희들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입니다”라고 소개를 했다. “아, 그렇습니까? 아까 목욕탕에서 소개를 했으면 더 빨리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옷을 입지 않은 채로 인사를 하는 것은 실례가 되겠기에 먼저 나와서 정장을 하고



허채 형제의 가족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19살밖에 안 된 외국 선교사가 예절을 잘 알고 있구나 생각했다.

그 때 스펜서 장로와 이정현 장로는 지금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준비하는 기간이며(앨마서 32:34 참조), 복음을 받아들여 계명에 순종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그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 허 형제는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5월 6일 침례를 받고 이 지역의 첫번째 회원이 되었다. 그 후 인천 지부장과 감독, 초대 인천 스테이크장을 역임하면서 2남 2녀의 직계 가족은 물론 방계 가족 33명을 침례의 물가로 인도했다.

2. 네 자녀와 조카들을 복음 안으로 인도함

그가 이렇게 복음 안으로 가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시골에 사는 친척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결혼까지 하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가 복음 안으로 인도한 조카들은 대부분 침례를 받았으며, 송탄 지부장을 역임했던 이해일 형제를 비롯하여 7명의 조카들과 그들의 가족 19명을 합하여 28명의 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하는 데서 비록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대신하는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허 형제의 맏딸 옥자는 최수영 형제와 결혼하였고 둘째 딸 옥선은 김주형 형제와 결혼하여 내외가 로스앤젤레스 한인 지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 큰 아들 선화는 화곡 와드 감독으로 봉사했으며 현재 미국에서 내과 의사로 일한다. 막내 아들 양회는 부산 선교부에서 선교 사업을 마쳤고 미국 루즈벨트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네 자녀가 모두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 것은 큰 축복이요 기쁨이 되고 있다.

3. 오천 명의 조상을 구원함

허 형제는 직계 조상과 방계 조상의 성전 사업에 대한 목표를 갖고 33권의 족보를 입수하여 자료를 발췌했으며 약 5,000명의 조상을 위한 대리 의식을 받았다. 성전에서는 1주일 밤낮으로 허 형제 조상들의 엔다우먼트를 해야 했을 정도였다. 그는 과거 몇 년 동안 1년에 100번 이상 성전에 가서 대리 의식을 받았고, 드디어 지난 2000년에 계보 사업을 완수하였다.

4. 사위 최수영 형제의 가족

최수영 형제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1964년 급우 박상옥 형제를 통해 복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서울 서부 지부(현 서대문 와드)에서 침례를 받았으며, 1971년 3월부터 2년 간 한국 선교부 선교사로 봉사했다. 귀환한 뒤 하와이 브리감 영 대학교로 유학을 떠난 그는 1986년까지 한국어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착시켰으며, 한국에 돌아와서는 청주 스테이크 복대 와드 감독으로 2년 간 봉사했고 청주 스테이크장으로 6년 간 봉사했다. 그는 허채 형제의 맏딸인 허옥자 자매와 하와이 성전에서 결혼하여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다.

한편 최 형제 가족의 모범으로 인하여 어머니 김봉예 자매와 형 최의장 형제의 가족들이 침례 받게 되었으며, 어머니의 소개로 시누이 최야문예, 최의예 자매가 서울에서 침례를 받았다. 세 분 할머니는 영동 스테이크 영동 와드에 열심히 다녔으며 지금은 고인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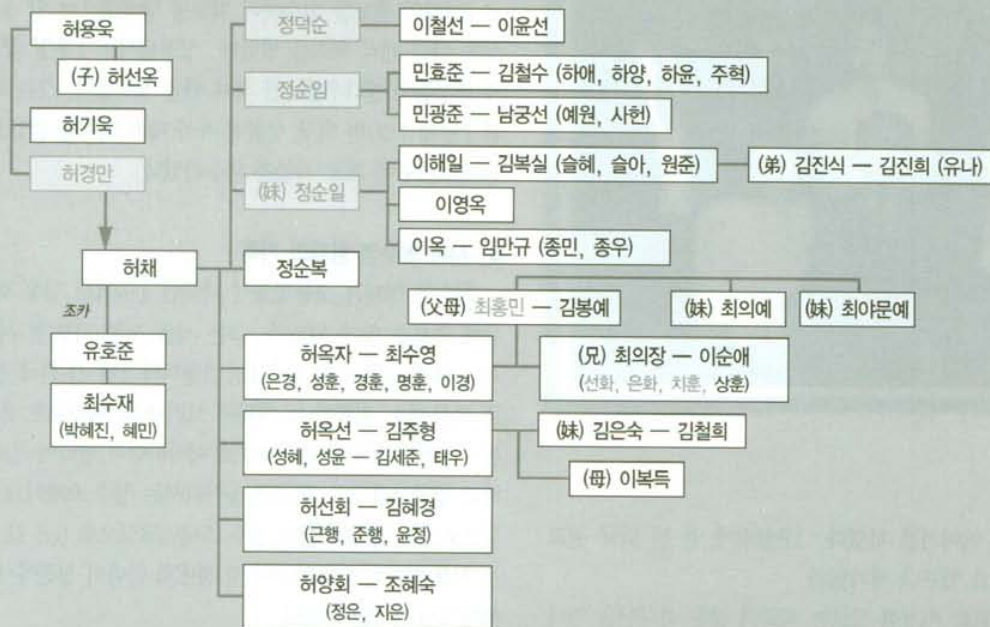
5. 값진 유산

최 형제는 유학 시절 축복사의 축복을 받았다. 축복문에는 '조상

최수영 형제의 가족



허채, 최수영 형제의 가족과 방계 친족 가계도



들이 영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들였으며, 성전에서 그들의 구원을 위한 대리 의식을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쓰여 있었다. 어떻게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의아해 했던 그는, 몇 년이 지난 후 마음이 징직한 자들이 영의 세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 형제는 한국에 돌아온 후 계보 사업을 열심히 하여 1992년 직계의 성전 의식을 마쳤다.

어렸을 때 그는 아버지가 융통성도 없고 고지식하며 지나치게 정직한 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족보를 연구하면서 자신이 해주 최 씨 해동공자 최충의 31대 손이요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의 18대 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만리는 세종대왕 시절의 유학자로 청백

리 제1호였으며(항희 정승이 2호) 만팔은 이율곡의 증조모가 된다. 그는 아버지의 성품이 최씨 가문의 전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후손들에게 그러한 가풍을 전해주시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

6. 여호와를 섬기면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최 형제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에 대한 간증을 심어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두 아들이 선교 사업을 다녀왔고 막내 아들도 전임 선교사로 봉사 중이다. 말일에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실한 내 종아 잘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허채 형제와 최수영 형제의 가족들은 더 열심히 주님을 위해 일할 결심을 하고 있다.

특집 기사

시온의 세 열매

지난 2월 3일(토)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에서 150여 명의 회원과 구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온의 세 열매'가 개최되었다. 텔레비전 광고를 패러디한 '시온의 세 열매로 가요'를 시작으로

성극, 촌극, 합창, 춤 등이 공연되었다.

'시온의 세 열매'는 1980년부터 해마다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의 청소년들이 갖는 모임으로, 1990년 부평 와드에서 계산 와드

가, 1995년 다시 산곡 와드가 분리되면서 세 와드가 합동으로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열매란 '신앙, 소망, 사랑'이다.(엘마서 7:24 참조)

I. 신앙

미래의 지도자가 될 청남 청년들은 이번 모임을 통해 성신의 인도를 간구하여 영의 속삭임을 느끼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부평 와드의 양현아 자매가 기도에 대한 간증을 얻은 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였다.

“사실 발표 직전 리허설을 할 때까지만 해도 미흡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발표날, 우리는 시작 전에 모두 모여 기도를 했습니다. 비록 연습을 잘 하지 못했지만 발표하는 동안은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발표가 시작되자 우리는 모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습할 때와는 달리 정말 순조롭고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재능 발표회나 청남 청년 모임을 하면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부모들 대부분은 혹시 자신의 자녀가 연습 때문에 학업을 게을리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해 부평 와드의 백운임 자매가 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사실 대입을 앞둔 부모로서 걱정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기에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다가 막상 대학에 들어가서는 저활동이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매년 활동 위원과 준비 위원으로 수고하는 자녀들을 지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사랑과 소망과 신앙의 뿌리를 심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임을 준비하는 청남 청년들의 눈망울은 영적이었고, 요즘 난무한 청소년들의 비행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시온의 열매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예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백운임 자매가 이야기한대로 이 모임은 그동안 모태 신앙으로 별다른 간증 없이 교회에 다니던 한 청소년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였다. 지난 2월 4일(일)에 있었던 금식 간증 모임에서 부평 와드의 한 청소년은 ‘과거에 부모님께 이끌리어 수동적으로 교회에 참석했던 것과는 달리 시온의 세 열매를 준비하면서 간증을 얻고, 지금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있으며 교회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고 전했다.

II. 소망

한편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고 나누는 기쁨은 ‘시온의 세 열매’를



준비하면서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기쁨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방학 중에도 과외와 학원 수업으로 바빴지만 열심히 연습했다. 그러면서 전에는 생각지 못한 연기와 춤과 노래와 수화를 배웠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훌륭히 발표하고자 하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무대에 올라가자 관객들이 열렬히 호응해주었으며 내려오자마자 어른들의 칭찬이 쏟아졌다. 이로써 그들은 자신감을 얻고, 재능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지난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수원 형제는 이번 모임을 준비하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부분에서 자신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좀더 ‘부지런해지고’, ‘책임감’과 ‘인내심’을 길러야겠다는 것이다. 그는 연습 기간 동안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짜증을 내거나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았던 때를 떠올리며 조금만 참고 양보했다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형제를 포함한 많은 청남 청년들은 이렇게 불평과 이견이 오가는 가운데에도 이를 잘 조율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또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극복하고 잘 준비된 주님의 도구로 쓰이고자 하는 소망을 지닐 수 있었다.

III. 사랑

‘시온의 세 열매’는 부평 와드 이진진 형제가 마음의 문을 여는데 중요한 동기를 주었다. 사실 이진진 형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와 멀어져 한 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얼마 전 다시 교회를 찾았을 때는 옛 친구들과 새로운 친구들 모두 서먹서먹하여 어울리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시온의 세 열매’를 준비하면서 그들과 아주 친해지게 되었고, 교회에 가는 것이 무척 즐거워졌다. 그는 ‘교회 생활이 즐거워진 뒤 학교 친구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가 복음을 소개한 친구도 발표 준비를 함께 하였으며 모임이 끝난 뒤 간증을 나누었다.

“저는 학교 친구인 이진진 형제의 소개로 이 교회를 알게 된 김

총 형제입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지만, 이번 '시온의 세 열매'에 함께 참여하면서 교회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선교사님들과 복음 토론 중에 있으며 3월 11일에 침례를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청남 청년들은 감독단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매일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발표 당일에도 모든 회원이 참석하여 입추의 여지없이 활동실을 가득 채운 것에 무척 감사하고 있다. 부평 와드의 양홍규 감독은 모임을 준비하면서 청소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고 말했다.

"경전에는 아론 신권의 주된 임무가 '교회를 돌보는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돌보는 것보다는 내가 좋고 편한 것만을 좋아하는 것이 요즈음 세대의 특징입니다. 급속한 정보화와 문명의 발전으로 모든 것이 신속해지고 쉬워지니까 아이들은 함께 하기를 싫어하고, 이기적이 됩니다. 저는 그들에게 참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지녀보도록' 하기 위해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이 모임을 갖도록 권고했습니다. 한 때는 청소년들과 청남 청년 회장단이 어렵고 힘든 것을 시킨다고 많은 불평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힘들어도 참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 지난 99년 중단되었던 새벽 세미나리를 그들이 스스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감에 감사드립니다."

'시온의 세 열매'는 모임을 준비하는 청소년들뿐 아니라 와드의 다른 회원들까지도 사랑으로 묶어주었으며, 신앙이 강화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은 혼탁한 사회에서 자신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시온의 세 열매'와 같은 발표회를 준비하면서 청소년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성신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간증을 스스로 얻을 수 있다. 그리하여 '나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훌륭한 지도자로 자신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제4회 한국 말일성도 청년 대회 준비 모임

지난 2월 24일(토)~25일(일) 청주 스테이크 복대 와드에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김종열 장로의 감리로 제4회 한국 말일성도



4번째로 열리게 된 한국 말일성도 청년 대회 포스터

청년 대회 1차 준비 모임이 있었다. 중부 종교 교육원 정태걸 형제의 지도로 전국 청년 회원 대표와 운영 위원들이 참석하여 토론과 워크숍, 설문 조사, 답사 등의 일정을 진행하였다. 이 대회는 오는 8월 8일(수)부터 11일(토)까지 3박 4일 간 개최될 예정이며, 인터넷 동호회(<http://www.iloveschool.co.kr/>)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강릉 지방부

강릉 지부 미니 MTC 및 우정의 밤

강릉 지부에서는 지난 2월 1일(목)부터 3일(토)까지 미니 MTC를 개최하였다. 첫째날에는 선교 훈련 모임과 우정 증진 프로그램이, 둘째날에는 서울 동 종교 교육원 조만구 형제의 강의가 있었으며, 셋째날 오전 길 전도가 끝난 뒤 우정의 밤을 가졌다. 이 모임에는 구도자 32명을 포함해 70여 명이 참석하였다. (신기현)



한국 말일성도 청년 대회 1차 준비 모임에 참석한 형제 자매들.

광주 스테이크

L.O.A 축제

지난 2월 24일(토) 광주 스테이크 L.O.A(Love One Another) 축제가 열렸다. 청소년들에게 회원 선교 사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간증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 축제의 목적이다. 이날 처음 교회에 방문한 20여 명의 청소년 구도자들은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회원들과 어울릴 수 있었다. (박정자)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 축구단 결성

지난 2월 17일(토) 최완재 형제를 단장으로 18명의 선수가 연산 와드 축구단 '구모라'를 창단하였다. 이날 부산 교육 대학교 축구단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강릉 지방부 우정의 밤, 광주 스테이크 LOA 축제, 부산 스테이크 연산 와드 축구단 '구모라', 서울 강서 스테이크 초등학교 합창 대회.

과 창단 경기를 하였다.(이희숙)

스테이크 합창제

지난 2월 25일(토) 부산 스테이크 합창제가 열렸다. 5개 와드에서 각각 2곡씩 자유곡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으며, 광안 와드의 미국 민요 메들리가 뛰어난 화음을 들려주어 찬사를 받았다.(이희숙)

동계 청소년 대회

지난 2월 23일(금)에서 24일(토)까지 경남 양산에 위치한 무지개 수련원에서 청소년 55명과 지도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스테이크 동계 청소년 대회가 열렸다. 48시간 생존법과 응급 처치, 청소년의 성과 순결의 법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으며, 한국 보이스카우트 연맹에서 표창장과 메달 4개를, 부산 보이스카우트 연맹에서 표창장 4개를 보내와 각 조원들의 투표로 수상자를 선발하였다. 수상자로 뽑힌 광안 와드 이의환 형제 외 7명의 형제 자매는 이들이 다니는 학교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게 된다.(이희숙)

서울 스테이크·서울 선교부

로버트 할리 초청 노변의 모임

지난 2월 3일(토) 서울 스테이크와 서울 선교부는 로버트 할리

형제를 초청하여 영어 학습법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700여 명의 회원과 비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평택에서 온 한 비회원 형제는 "할리 씨가 선교사로서 한국과 인연을 맺은 사실은 처음 듣습니다. 바쁜 방송 활동 중에도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다.(허용환)



서울 강서 스테이크

초등학교 합창 대회

지난 2월 24일(토) 김정권 스테이크장의 감리 하에 강서 스테이크 초등학교 합창 대회가 열렸다. 총 9개 와드 지부가 참가하여 지정곡과 자유곡, 창작 동요를 발표하였으며, 각각의 와드 지부에는 예언자들의 이름을 딴 상을 주었다.(권미리)

서울 서 스테이크

동계 청소년 대회

서울 서 스테이크는 지난 1월 29일(월)부터 30일(화)까지 경기도 강화군 석모리에서 동계 청소년 대회를 개최했다. 총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산행과 강화 유적 탐사를 통해 서로 단합하고 역사적인 안목을 넓히는 법을 배웠다.(신상용)

인천 스테이크

미추홀 축제

인천 스테이크 제2회 미추홀 축제가 2월 23일(금), 24일(토) 양일 간 개최되었다. 23일에는 클래식 연주와 춤, 노래 등이 공연되었으며 24일에는 각 와드별로 오랜 기간 준비한 연극을 발표하였다.

전주 스테이크

청녀 새로운 시작

전주 스테이크 청녀 새로운 시작이 지난 2월 3일(토) 개최되었다. 청녀들은 개인 발전 기록부와 선교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듣고 비디오회를 시청하면서 2001년 목표인 '신앙의 자립' (모사이야서 18:26 참조)을 준비하였다.(오경미)

청주 스테이크

합창 대회

지난 2월 24일(토) 이정은 스테이크장의 감리 하에 합창 대회가 열렸다. 전주 스테이크장단 제2보좌 정태걸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모임에는 총 7개 와드 지부가 참여하였으며, 심사 위원으로 황

충열, 장병순, 조영환 형제가 수고했다.(박미영)

종교 교육원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

지난 2월 10일(토) 마산 스테이크 마산 와드에서 부산 종교 교육원 주최 세미나리 경전 퀴즈 대회가 열렸다. 개인전에서는 진해 와드 황수현 자매와 경화 와드 김현승 형제가 공동 1위를 하였고 단체전에서는 창원 와드가 1위를 하였다. 같은 날 서울 서 종교 교육원 경전 퀴즈 대회가 열렸으며, 총 6개 스테이크가 참가하여 강서 스테이크의 표연정 자매와 한수정 자매가 1위를 하였다.

한편 중부 종교 교육원 경전 퀴즈 대회는 2월 23일(금)부터 24일(토)까지 각 스테이크 별로 열렸다. 대전 스테이크에서는 "골든벨을 울려라" 형식의 퀴즈 대회가 진행되어 선화 와드 정해상 형제가 총 50문제 중 45문제까지 푸는 데 성공하였다. 또한 청주 스테이크에서는 와드 지부를 혼합하여 3팀이 본선에서 겨루었으며 상은 가장 많은 회원이 참여한 제천 지부에 돌아갔다.

역원 변경

마산 스테이크

남해 지부장: 김태신(전임자: 권익렬)

부산 스테이크

양산 지부장: 이정훈(전임자: 하해익)

수원 스테이크

안성 지부장: 이승호(전임자: 김태준)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239기 6명/해외 4명



박현주

인천 스테이크
담동 와드
부산 선교부



이수진

안양 스테이크
시흥 와드
대전 선교부



이현정

서울 서 스테이크
신림 와드
부산 선교부



조은영

광주 스테이크
백운 와드
부산 선교부



천무철

대구 스테이크
영천 와드
서울 서 선교부



홍여진

서울 서 스테이크
사당 와드
서울 선교부



노동일

전주 스테이크
정읍 와드
캘리포니아
롱비치 선교부



곽영화

마산 스테이크
진주 와드
유타 템플 스캐어
선교부



정용태

광주 스테이크
첨단 지부
캐나다 밴쿠버
선교부



서동진

서울 북 스테이크
녹번 와드
캘리포니아
오글랜드 선교부